



핫한 키워드를 모아모아 <키워드 인터뷰>

최지은 BBS 라디오기술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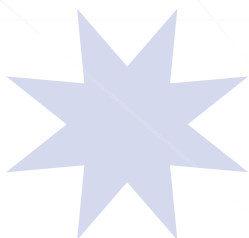
“ 불교 또 나만 빼놓고 재밌는 거 하네 ”



제32회 불교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

불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종교를 떠나 마음이 힘들 때 스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분들을 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그맨 윤성호의 부캐, 뉴진스님의 등장으로 불교에 MZ 감성이 한 스푼 추가되어 젊은 세대에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이슈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32회 불교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BBS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키워드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키워드 인터뷰



‘키워드 인터뷰’는 최근 불교계에 떠오르는 ‘힙한’ 키워드들을 통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불교나 템플스테이 등 기존에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누구나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신속성과 소통에 주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슈가 빠른 현대 사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춰 불교계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고 유튜브의 장점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친밀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도 특징인데요, TTS(Text to Speech) 기능을 통해 AI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ChatGPT를 통해 내레이션 문구를 다듬어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콘텐츠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개의 키워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키워드 1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댕플스테이는 처음 들어보셨겠죠? 예상하셨겠지만 강아지(댕댕이)와 템플스테이의 합성어로, 반려견과 그 주인이 함께 사찰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삶에 지쳐서 종교와 상관없이 쉬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가거나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미혼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이 많아지면서 충청북도 증평군 ‘미륵사’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찰복을 입고 스님과의 차담, 예불, 108배 체험을 하며 재미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란함을 벗어나, 고즈넉한 산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온전한 심을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2 '2.340시간'

2,340시간, 무려 10개월의 시간 동안 김성문 학생은 심혈을 기울여 졸업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실명 수준의 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로 140cm, 세로 230cm의 '미륵하생경변상도'를 선보였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이 작품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미술이라는 독창적 소재를 통해 한국 전통의 깊이를 이어가고,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려는 청년 예술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불교미술을 현대적으로 그려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압구정로데오역 근처 '포브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졸업작품 전시 중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작품의 웅장함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3 'AI 불교음악'

'가자가자 넘어가자' (AI 반야심경 가사 중)

클럽 노래와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 나오는 가사에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바로 AI로 만든 불교음악이었습니다. 힙한 리듬과 어렵지 않게 현대적으로 가사를 풀어내어 신남과 위로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불교의 큰 축제, 불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핫한 뉴진스님의 디제잉을 포함하여 다양한 무대와 부스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여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음악이었습니다. 찬불가는 잔잔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옛 전통 음악 같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힙한 음악들이 나와서 무슨 노래일까 유심히 듣던 중, 흘러나오는 가사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불교의 전통적 음율에 AI가 더해지면서 신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젊은 세대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통해 기존 찬불가의 편견을 깨부숴주었습니다. AI의 세련된 멜로디와 리듬, 마음의 평화를 담은 가사가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AI 반야심경
유튜브 링크



AI가 만든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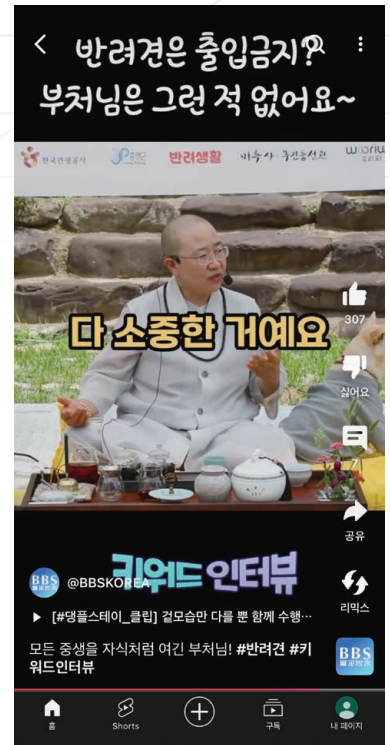
AI 크리에이터 고펜(Gomdan)

글을 마치며

BBS 불교방송은 처음 라디오 개국을 통해 청취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TV 개국과 유튜브를 통해 불교와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 청취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인터뷰>는 짧은 러닝타임으로 부담 없이 시청하실 수 있고, 색다른 내용의 콘텐츠들을 통해 종교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짧게 세 개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렸지만, 앞으로 '불교스카우트', '나는 절로' 등 더욱 흥미로운 키워드 인터뷰가 업로드될 예정이니, 관심 갖고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모든 방송사에서 시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음악 제작 과정에 조금씩이나마 시가 잘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방송계에서의 시 활용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유튜브 쏘츠 이미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키워드 인터뷰>를 보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종교와 상관없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길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새롭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도 현대적 감각과 합쳐지니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힐링과 예술, 그리고 전통의 의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키워드 인터뷰>를 통해 첫 발걸음을 내디뎌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